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13호

▷ 연기영 교수 퇴임 기념 고별강연



약 32년 6월간 교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정년퇴임을 앞둔 연기영 교수의 고별강연이 지난 12월 6일(수) 법학과 강의를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기술융합의 시대에 필요한 법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대표의 꽃다발 증정과 제자들과의 기념촬영이 이어져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기영 교수는 동국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학사와 석사학위,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민법과 노동법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5년부터 동국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는 저서로 『생산물손해배상책임법』, 『스포츠법학의 새로운 지평』, 『스포츠법학연구』 등 약 13권을 펴냈으며, 총 15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습니다.

▷ 법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기부

지난 12월 7일(목) 법과대학 동창회(회장 김용길)가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금한 기금 11,000,000원을 법과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본 기부금은 추후 법학과 대학원 및 학부 재학생 중 신청을 받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김인범 동문(85)이 법학과 발전기금으로 매월 5만 원을 약정해주셨습니다.

▷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특별강연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특강이 지난 11월 23일(목) 법학관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평화란 무엇인가?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였으며, 약 30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평화의 의미와 평화를 이뤄낼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박경서 회장은 2001년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에 임명돼 2007년까지 인권대사직을 수행하였고, 본교에서 석좌교수로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국가인권위 자문위원, 유엔 세계인권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 일반대학원 법학과 블록세미나

일반대학원 법학과 상사·형사법 블록세미나가 지난 12월 4일(월)~5일(화)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용상 교수(상사법)와 강동욱 교수(형사법)를 비롯하여 상사·형사법 전공의 재학생 및 신입생 약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복수의 전공이 교차되는 이슈에 대하여 학설 비교, 비교법적 연구, 판례 평석, 이슈에 대한 각 전공의 입장에서의 분석 및 토론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도교수의 첨언을 통해 상호간의 학술 발전을 이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신입생은 일반전형 23명 특별전형 10명으로 총 33명이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